**지속 가능 하지만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나만의 공부법**

**경영학부 17학번 이용진**

**에세이 작성 동기**

안녕하십니까 현재 경영학부 3학년에 재학 중인 17학번 이용진입니다.

제가 나만의 학습 노하우 즉 에세이 작성의 동기의 가장 큰 이유는 1학년2학기 학사경고를 받은 이후 2학년부터 현재 3학년까지 4학기 모두 4점대를 달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학사경고 였지만 신입생 혹은 재학생 여러분들이 저만의 학습노하우를 통해

직전 학기 보다는 향상된 성적을 받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되고자 나만의 노하우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2학년때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강좌가 주였으나 올해 3학년 부터는 본격적으로 대면

강좌가 위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저만의 팁은 크게 전공과 교양과목 , 대면강좌와 FL (동영상)강의로 구분하여 작성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학우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학습법 등 Tip 세부 내용**

우선 전공과목들의 TIP부터 작성하겠습니다.

경영학과는 타과에 비해 세부전공이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 재무, 회계, MIS, 경영과학, 전략, 인사조직, 항공경영, 경제 등 다양한 전공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세부전공에 해당하는 전공들은 각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세부전공별로 요구하는 학습의 방향성과 역량에는 다소 차이가 존재합니다.

물론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능력은 암기를 기반으로 한 이해입니다.

우선 회계, 재무와 경제의 경우 계산 즉 수식을 위주로 공부를 해왔습니다. 해당 과목들은 이론과 개념을 중요하게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나 해당 개념을 기반으로 한 연습문제와 교수님이 주시는 문제들을 정확하게 풀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 넘버링을 통해 암기하였고

숙달하였습니다. 문제를 연습할 때 단순히 손으로 푸는 것이 아닌 단계별로 1번 2번 3번 최종 답안은 00 이런식으로 나누어 공부하였습니다. 해당 방법이 초기에는 귀찮을 수 있으나 반복된다면 변형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기존 접근 방법을 떠올릴수 있을 것 입니다. 특히 경제학의 특성상 답안 작성시 논리적 구조가 요구되는데 넘버링을 통해 답안 작성을 연습한다면 깔끔한 답안 작성이 가능 합니다.

이외 MIS, 전략, 인사조직, 항공경영, 마케팅의 경우 이론을 기반으로 강좌가 진행되기에 암기를 바탕으로 이해를 해야하며 해당과목들의 경우 서술형 형태의 답안 작성을 주로 요구하기에 저만의 암기 방법을 작성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암기력이 좋지 않아 조금 일찍 시험공부를 시작하는 습관을 가졌는데 이제와서 생각해보면 이부분이 성적향상에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분들의 의견은 다를수 있으나 저의 생각은 input이 많아야 output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시험기간 최소 2주전 부터는 해당 과목들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며 암기 하고자 합니다.

저의 암기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암기는 눈이 아니라 손으로**

저는 암기를 할 때 눈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교재 혹은 강의를 시청하면서 빈 A4용지에 제 손으로 쭉 한번 작성을 해봅니다. 그후 해당내용을 기반으로 저만의 정리본을 만들어 봅니다.

이때 손으로 쓰는게 어렵다면 패드 혹은 워드를 통해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 **정리본을 줄여보자**

앞서 작성한 정리본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것 입니다. 저 같은 경우 처음 작성한 정리본을 작성한 이후 버리고 다시 작성합니다. 남들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처음 교재와 영상을 시청하면서 정리를 하게되면 작성하는 자체에만 집중하게 되어 정리본 내용이 방대하거나 혹은 불필요한 정보가 많이 담기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다시 한번 작성함으로써

앞서 언급한 암기는 눈이 아닌 손으로 다시한번 경험하며 정리본이 기존에 비해 훨씬 간결하고 중요한 포인트를 작성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빈종이에 작성**

저는 시험 전 해당과목들의 공부의 질을 파악하기 위해 빈 종이에 작성을 해봅니다. 각각의 과목들의 정리본을 작성한 경험을 바탕으로 빈 A4용지에 1장부터 시험범위까지 쭉 대략적인 개념을 써봅니다. 1장의 주내용은 00이며 세부 내용은00이고 해당 주차의 키워드에는 00것들 것 존재한다. 간략하게 작성한 이후 교재의 맨 앞부분에 존재하는 목차와 비교를 해봅니다.

비교적 공부가 잘된 과목들은 목차와 대략적으로 유사한 형태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과목들은 그렇지 않은 형태를 보입니다. 이과정을 통해 부족한 과목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잘된 과목의 경우 해당 부분을 계속 유지 할 수 있게 합니다.

교양과목에 대해 작성해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교양과목을 좋아하지 않아 많은 과목을 수강하지 않았습니다.

교양과목의 경우 교수님들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PPT 혹은 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작성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수님들도 있지만

강의 내용과 강의 자료를 기반으로하여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수님들도 있기 떄문입니다.

우선 전자의 교수님의 경우 저는 앞서 언급한 빈A4용지에 작성하는 연습을 통해 공부하였습니다.

교양의 경우 정리본을 작성 시 시험문제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기에 해당 방법을 추천합니다.

후자에 해당하는 교수님의 경우 넘버링을 통해 논리적 구조로 작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바탕으로 답안을 작성 시 자칫 주관적 사고로 인해 답안전체의 논리구조가 깨지는 경우가 존재하기에 넘버링을 통한 답안 작성을 연습한다면 추후 개인의 주관이 담겨있지만 논리적이고 깔끔한 답안 작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교양의 경우 중간-기말에 한번 레포트 형태의 과제가 주로 있는데 교양 과목 특성상 자신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레포트가 주류였습니다. 이에 저는 논리를 위주로 작성하되 이후 주변 지인들을 통해 수정받았습니다. 논리적으로 작성을 하여도 개인의 주관이 담기다 보니 타인의 객관적 시각을 통해 수정받는다면 좀 더 깔끔한 결과물(레포트)를 획득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FL)의 경우 강의실이 아닌 집 혹은 본인이 편한 장소에서 시청하게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뻔하지만 해당 시간동안 휴대폰과 같은 방해요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다소 귀찮을 수 있으나 저는 매주 온라인 강좌를 시청 한 이후 해당 과목들을 워드로 정리를 하였다. 이과정을 통해 온라인 강좌에 집중 할 수 있었으며 추후 시험기간에 다시 온라인 강의를 듣지 않아도 막히는 부분을 해결 할 수 있었다.

대면강의의 경우 맨앞줄 혹은 2번째 줄에 앉는 것을 추천한다.

본인은 대면강좌가 진행 된 3학년1학기부터 대부분의 전공과목 시간에 앞자리에 앉았다.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앞자리를 통해 얻는 가장 큰 효과는 수업에만 오로지 집중이 가능하다. 앞자리는 뒷자리에 비해 딴짓을 하기 어려우며 교수님과 가깝기 떄문에 수업에 더욱 집중 할 수있다. 또한 교수님과 내적 친밀감(?)을 형성 할 수 있어 강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대해 부담감이 다소 줄어든다.

마지막으로 종합하여 팀플의 경험에 대한 팁을 작성하고자 한다.

팀플의 경우 다수의 학우분들이 팀플을 기피할 것이다. 저 역시도 팀플을 기피하였으나 팀플을 통해 얻어간 경우가 많았다고 생각한다. 얻어간 경험은 크게 2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우수한 팀원과 열정적인 팀원들과 작업을 하는 경우 내가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

혹은 접근방법을 터득할 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의견갈등을 해결 하기위한 조직갈등관리 등의 조직을 구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경험을 미리 체험 할 수 있어서 좋았다.

두 번째는 흔히들 말하는 프리라이더를 통해 경험을 상승시켰다. 다수의 학우분들이 팀플을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프리라이더의 존재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저는 프리라이더들이 자신의 몫을 해주지 않아 오히려 나의 분량이 늘어나는 것을 힘들지만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가

사회에 나가게 되면 신입사원 혹은 석사생의 신분으로 프로젝트를 하기 어려울 것인데 프리라이더가 자신의 몫을 스스로 포기해주었기에 내가 더 많은 부분에 기여 할 수 있는 좋은기회라고 생각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힘들고 지치긴 하였으나 생각을 조금 전환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였으며 이는 지금와서 갈등관리의 경험, 자신의 역량 증대에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학우 분들도 팀플을 단순히 기피하는 것이 아닌 조직관리의 경험을 미리 체험해보는 단계로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팀플에 이어서 PPT 제작에 대해 간단한 팁을 작성한다면 사실 워낙 PPT 제작을 잘하는분들이 학과 내 많이 계시기에 부족하지만 간단한 팁을 드리고자 하는데 글꼴과 글자 크기의 통일, 여백관리이다. 또한 우측 하단에 숫자작성하여 추후 질의자들을 배려하는 것 또한 팁이라고 생각된다. 가끔 PPT 발표를 보면 PPT 자체에 많은 내용을 담는 경우가 보이는데, PPT는 키워드 위주로 작성하되 발표자가 해당 키워드를 언급하며 발표하는 것이 PPT가 보다 간결하고 가독성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에 PPT 제작시 줄글의 내용을 담는 것 보단 키워드 형태로 작성하는 것을 추천한다.

**학습방법을 통한 능력향상과 기타 영향**

1학년 학사경고 이후 2학년, 3학년2학기 모두 4점대 이상의 성적을 기록하였다. 이 부분은 워드 마지막에 첨부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저의 학습방법이 남들에 비해 독특하거나 특별한 팁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는 해당 학습법을 통해 성적향상을 이루어냈으며 제가 부족한 부분과 관심이 가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공부 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영학과의 경우 타 학과에 비해 전문성이 약할 수는 있으나 다양한 세부전공을 경험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학우분들은 2학년-3학년에는 본인의 흥미를 이끄는 세부전공을 파악하여 해당 분야로 진로를 가지는 것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추천 이유 및 소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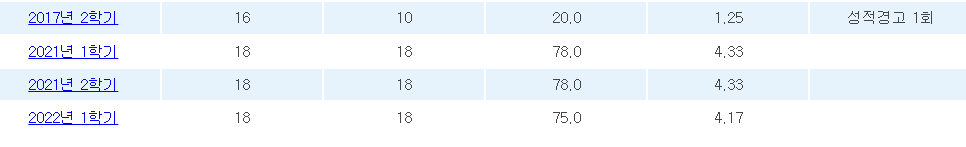
사실 학사경고 이후 아직도 종합 학점은 낮기에 제가 감히 학습법 노하우를 작성해도 괜찮을까라는 의문이 제일 컷습니다. 해당 학습방법은 어디까지나 저만의 방법이기에 학우분들이 가볍게 참고하셔서 각자 맞는 부분이 있다면 차용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가감히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학습법을 작성하면서 과거에 공부하였던 과목들을 다시 한번 떠올릴수 있었고 그동안 했던 부족하지만 나름의 노력을 하였던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올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학점이 역량인

시대는 점차 지나가고 있지만 학점만큼 학우분들의 노력을 객관적으로 평가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영학이론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차용되는 이유는 분명하게 존재하며 학우분들이 각자 흥미를 가지는 세부전공을 찾아 각자만의 대체불가능한 역량을 키우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을 위해서는 전공과목들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하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작성해보는 저만의 노하우라 부족한 부분도 많고 내용역시도 뒤죽박죽인거 같아 부끄럽습니다… 이상 나만의 학습노하우 작성을 한 17학번 이용진 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누적 성적**



**2022년 3학년 2학기 성적 (이번학기 성적)**



